

#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Public Architecture  
Compendium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a u r i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Public Architecture  
Compendium

( a u r i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인쇄일	2017년 12월
발행일	2017년 12월
지은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37
팩스	044-417-9613
홈페이지	<a href="http://www.npbc.or.kr">www.npbc.or.kr</a>
이메일	<a href="mailto:npbc@auri.re.kr">npbc@auri.re.kr</a>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진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이성일 연구원





# Contents

## 1

좋은 공공건축  
논의의 시작점

---

08

## 2

공공건축의  
차별성

---

16

## 3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원칙

---

20

## 4

좋은 공공건축이  
가져야 할 조건

---

28

## 5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적 접근

---

44



좋은 공공건축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의 CABE(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에 따르면 “좋은 공공건축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우리 주변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함께 하는 삶의 일부분을 담아내는 건축으로서, 공공건축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대응간의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공공건축은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 좋은 공공건축 논의의 시작점

## 좋은 공공건축 논의의 시작점

### 일상 생활과 공공건축

아침이 되면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동네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가고, 학생들은 수업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저마다의 통학 수단을 이용하여 학교로 향한다. 아이들을 등교시킨 부모들은 직장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부친다.

점심시간에는 직장 동료들과 식사 후 주변 공원에서 운동 겸 산책을 한다. 퇴근 후에는 동네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동하여 마

을 주민들과 함께 취미활동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자의 소식을 나누며, 때로는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건소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는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에 들러 아이들이 읽을 책을 빌리고, 인근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긴다. 일상생활은 공공성의 연속체,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네트워크를 넘나들면서 이루어진다.

‘공공건축(Public Architecture ; 公共建築)’이라 하면 보통은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법원, 경찰서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시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우체국,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소, 도서관, 미술관 등은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축이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공공건축은 시대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지만, 공공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기반시설로서 공공서비스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하며, 입지하고 있는 생활권의 위계와 특성에 따른 기능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인구구조·산업구조·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2

공공건축은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아파트 숲 사이 근린공원의 공터를 독서, 문화 및 여가, 아동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한내 지혜의 숲’이다.

한내 지혜의 숲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를 결합하여 탄생하였으며, 동네주민들의 삶 속에 자리잡은 공공건축이다.

또한, 공공건축은 시민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소이자 자연스러운 교육의 공간이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공건축 주변에는 상점과 업무시설이 밀집하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 최근에는 쇠퇴한 도시를 재생 및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우리 공공건축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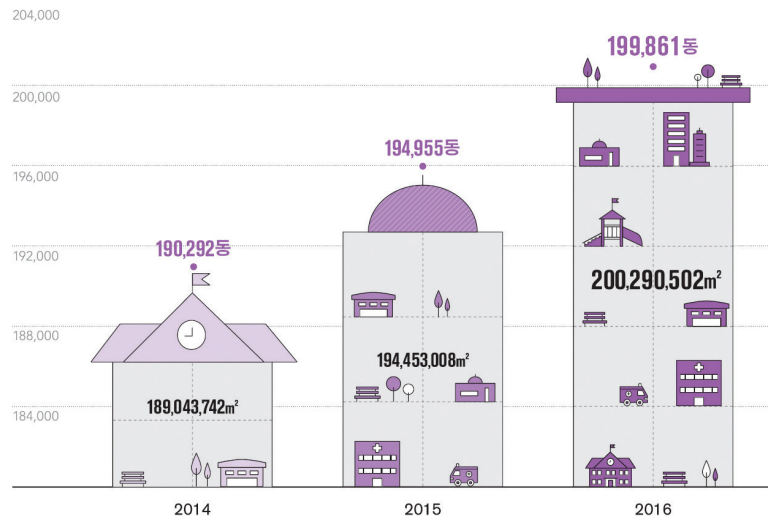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최근 발표된 국가통계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199,861동으로, 매년 약 4,800동의 공공건축이 신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건축물의 연면적도 1동당 평균 1,00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건축물(1.0%p)대비 공공건축물의 연평균 증가율(2.5%p)은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공공건축 조성 건수와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현실에서의 공공건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공공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부족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시하여 ‘좋은 건축물’ 보다는 ‘빠르고 값싼 건축물’이 지어진 이유도 있다.

공공건축의 공간 안에 담아야 할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들과 이를 충족시킬 조건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기간 안에 적은 예산을 들여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데에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표1 ] 전국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7), 건축과 도시공간-동네풍경과 일상을 바꾸는 공공건축, Vol.27, p.53.

## 규범 정립과 지자체의 노력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 2007년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

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소규모 공공건축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건축행위에 대한 질을 높여려는 시도와 함께 ‘도시공간개선단’을 조직하여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관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는 2015년

[ 표 2 ] 공공건축 관련 제도 및 주요 내용

구분	근거 법령 및 조례	업무내용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운영)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조례 제36조 제3항)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조례 제37조 제3항)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자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공공 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자문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진 건축가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

[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p.2.



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는 충남연구원 내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수준 높은 공공건축 및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성에 대한 정의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수요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결국 공공건축이 가져야 할 요건과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공공성(公共性)을 가진 공공건축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정리해보면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론적 공공성으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도구적 공공성은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개념으로, 최소국가가 ‘중립적 도구’로서 시민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공공성 논의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제도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범위는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하는 이념이 아니라 약화되어야 하는 이념이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도구적 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도’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 표3 ] 공공성의 유형

구분	민주주의관	
	시민 민주주의	공민 민주주의
정의 및 평등관	과정 지향적	결과 지향적
	도구적 공공성 (instrumental publicness)	담론적 공공성 (discursive publicness)
	윤리적 공공성 (ethical publicness)	구조적 공공성 (structural publicness)

\* 구조적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함

[ 자료 ] 임의영(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p.7.

도구적 공공성은 아노미 상태를 벗어나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한편, 윤리적 공공성은 좀 더 실질적이면서,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처럼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공정한 기회균등, 투명한 복지의 확충 등을 담고 있는 윤리적 공공성은 도구적 공공성으로 담보할 수 없는 긴장과 모순을 실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가치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도구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성의 일부분만 확보하는 것이며, 윤리적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접근은 공공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도구적 공공성이나, 윤리적 공공성 모두 일정한 정태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담론적 공공성은 보다 과정적이고 동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도구적인 공공성의 상태나, 윤리적 공공성의 상태 모두 담론적 공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으나, 담론적 공공성이 없이 달성된 도구적, 또는 윤리적 공공성은 충분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이상적인 상황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어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합의, 하버마스가 말하는 담론적 의사소통을 거쳐 결론

에 이르는가가 담론적인 공공성을 의미하며, 그러한 담론적 공공성이 부족할 때, 달성된 이상적인 상태는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공공재와 비경합성, 비배제성, 클럽재

공공건축을 구현하는데 있어 우리가 고려할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론적 공공성은 어떻게 달성이 가능한가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재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무엘슨 같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로 정의되고 있다. 태양빛이나 음악처럼 모두가 공유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재화가 바로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기나 해변의 경치 등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볼 때, 현실의 모든 재화 또는 공공재로 일컬어지는 재화들조차도 완전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뷰캐넌이 제시하는 클럽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경제력 등을 기반으로 진입·이용할 수 있는 클럽재는 대부분의 공공재, 특히 생존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공공재가 가지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진입조

건과 수혜대상을 어떻게 계획·조정·규제하는가를 결정하는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공공의 역할은 단순히 시장의 작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체의 논리와 맥락에 따라 변하게 된다. 또한, 다시 공공의 역할을 스티글러가 말하는 '포획이론'(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띤 산업 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그럴듯한 주장

과 설득에 넘어가 이익집단의 의도대로 규제정책을 펴기 쉽다는 뜻에서 포획이론이라는 말이 쓰여짐)등으로 인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건축은 결국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틀에서 이해하고 구현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가지는 중첩점이면서 서로 다른 측면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 공공건축에 주어진 사회적 임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표4 】 경제학에서의 공공재 개념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 등)	공유 자원 (물, 생선, 사냥 등)
비경합성	클럽재 (케이블 TV방송, 전력, 수도 등)	공공재 (국방, 치안, 지상파 TV방송 등)



공공건축이 가지는 차별성은 일반적인 공공재와의 차별성,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과의 차별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재가 가지는 이론적인 조건은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어 클럽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며, 다른 한편으로 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있어 경계가 불확실한 측면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건축과 크게 구별된다. 이러한 차별성은 공공건축의 기획과 구현, 운영에 있어서 제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간부문의 건축이 구현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2 공공건축의 차별성

## 공공건축의 차별성

2

### 뷰캐년의 클럽제\*와 공공건축

공공건축을 공공재 중에서도 뷰캐년의 클럽재로서 바라본다고 할 때에도 공공건축은 다른 공공재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조성된 공간으로서의 공공건축은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공공재를 다루는 것과도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간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으면 동시에 다른 사람이 점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시도가 빈번할 때 안정적이고 온전한 공간의 이용자체가 위협받으므로, 그러한 공간의 이용에 대한 규율·조정·통제가 수반되어야만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건축은 사적인 건축에 비해 더 많은 규율·조정·통제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공간 및 사적건축에 비해 더 취약한 통제권이 부여된다는 점은 어려운 부분이다.

### 민간건축과 다른 공공건축으로 접근 필요

민간건축은 소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공간적 경계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공간진입에 대한 통제가 쉽고, 공공의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공간

의 이용방식에 대한 규율과 통제가 명확하게 유지된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공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간의 대응이 이루어지며, 관리주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영역을 기반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명확함은 공공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가로(街路)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때로는 공간적 경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그만큼 접근성을 통제하거나 공간의 이용방식을 규율·통제하는데 곤란함이 따른다. 이러한 측면은 행정구역이나 관할부서 등의 분화에 따른 관리주체의 다원화와 공간 이용에 따른 편익 및 비용부담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공건축이 가지는 어려움은 가중 된다.

따라서,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서는 민간건축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저마다의 개인적인 요구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 속에서 경쟁하고, 값비싼 건축물을 편의에 따라 전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구적 공공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이용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효율적인 공공개입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들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공공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명확한 공간이용의 원칙 속에서도,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고려한 정

#### \* 클럽제(요금제, club goods)

공공재처럼 비경합성이 있지만 무임승차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뷰캐년(James M. Buchanan)은 공공재로 여겨왔던 재화들도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공공재가 아니라 클럽재이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더 공공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순수공공재(사무엘슨의 주장)의 최적규모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클럽제는 무한대가 아니며 모든 재화에는 '최적 회원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책을 통해 공간이용의 결과에 대한 공공의 책임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앞서의 원칙과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용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기반

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공성을 함께 공공건축의 공간 및 시설의 이용에 있어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 Steven Haslington



© Henry

## 1 2

레고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는 사적공간으로 공간적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며 공간 진입 및 이용방식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 관리주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영역기반의 통제시스템 적용이 성립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서울역과 같은 공적공간은 공간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며 공간의 진출입과 이용방식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어려워 공간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역기반의 통제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있다.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복잡한 물리적인 대상을 기획하고 구현, 운영하는 실무적 과정속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원칙은 실무적인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 3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원칙

# 1

## 공공성

###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 1

2층 테라스의 모습이다. 박공지붕의 매스를 연결해주는 역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2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계단형 좌석에서 바라본 1층 복카페 및 상담센터와 2층 테라스의 모습이다. 계단형 좌석에서 청소년들은 1층과 2층 각각의 독립된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서의 공용공간에서 자연 채광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높은 층고를 두어 공간에 넓은 개방감을 주고자 설계되었다.

개인의 소유물인 사적공간으로서의 민간건축과는 다르게, 우수한 품질과 품격이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만이 좋은 공공건축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좋은 공공건축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좋은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국정부의 건축과 건설환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독립기구인 CABE(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에 따르면 “좋은 공공건축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좋은 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곳이어야 하며, 좋은 업무시설은 지역의 보편적인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중심으로 자발적인 마을 문제해결 및 공동체

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공공건축은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용자 모두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7년 5월에 개관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수원권역에 위치한 호매실지구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어 지역 청소년들의 소외감 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윤진



© 이윤진

## 철보 청소년 문화의 집 (2017)

-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09
- 규모 지상 2층
- 면적 건축면적 1,165㎡, 연면적 1,681㎡
- 설계 및 계획 이상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인코건축사사무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설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명의 담당자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수직적인 건축 형태에서 탈피**하고자 공원 부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없이 건축 가능한 면적 안에서 수평적으로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벽돌로 된 **박공지붕과 친근한 이미지의 마을** 외관을 형성하였다.

설계의도 구현 과정에서 **예정공사비의 부족**과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사의 기술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설계자·시공사·감독 공무원 등 **담당자들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 이상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안택진 소장 인터뷰 中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폭 넓은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각각 속한 또래집단 안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찾아 실험해보고, 학교와 학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기획단계부터 시설의 주 이용계층인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진로프로그램 등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수직형 건축물을 탈피하여 공원 부지 안에 수평적으로 펼쳐진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공간별로 변화하는 다양한 층고와 풍경, 실내외 공간의 입체적인 연계 및 다채로운 인상의 외관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

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2017),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문 입선(2017)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수원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과 또래의 문화를 향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청소년 문화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 3

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평으로 펼쳐진 넓은 공간에 공간별로 달라지는 층고와 다채롭고 밝은 인상의 외관으로 구성된 박공지붕 건축이다. 실내·외 공간의 단조로운 전개가 아닌 다채로운 시선 전개를 통해 공간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계획되었다.

## 2

## 효율성

전문적이고  
합리적·효율적인  
도구적 공공성

3

유희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던 어린이공원을 주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하여 공간에 대한 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인 대전광역시 대화동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이다.

4

개선 전(2017.01.) 대화 어린이 공원은 주민이 찾지 않아 공간 이용률이 떨어지는 유희공간이었다.

5

개선 후(2017.06.) 마을 축제,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 이용 효율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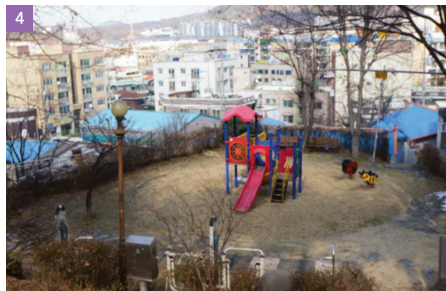
좋은 공공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시민이나 특정 집단·공공건축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계획하고 만드는 전문가 집단 사이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계획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요구와 건축물의 성능 및 디자인, 그리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건축이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총괄계획가, 설계자, 시공자 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의 기능에 따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능의 세분화 및 전문적인 공간 프

로그램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기획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과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업무에는 공공건축을 계획하고 우수한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감독·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공건축의 질과 직결된다. 공공건축의 조성 단계별 관리업무는 수많은 참여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기술적이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요구하며, 위기에 따른 창의적인 대응력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야 한다.

최근,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대화동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수행한 사례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제공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2017)

-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38
- 규모 지상 1층
- 면적 건축면적(연면적)  
113.32㎡
- 설계 및 계획  
(재)대전세종연구원,  
(주)디자인다더소시에이츠

본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한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쇠퇴한 구도심 또는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사업이다.

부족한 사업 기간과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 공원과 공·폐가를 활용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는 마을주민의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 (재)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위원 인터뷰 中

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201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화동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전문가 집단(대전세종연구원 및 지역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협의체)사이의 협업을 통해 추진된 본 사업은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등대운영위원회와 대덕구청, 대화동 주민센터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진 어린이 공원은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공공간 및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부지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 지역 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공·폐가로 버려졌던 공공공간을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하였다.

# 3

## 시민참여

### 참여가 보장되는 담론적 공공성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중심의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 특히 주 이용계층인 시민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 중심 전략이란 생활권역 단위로 공공건축물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공공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공간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들을 통합 운영하여 관리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는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시민참여는 공공건축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공건축을 이해하고 지역의 주요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향후 공공건축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긍심과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건축의 지속적인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를 통한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 위한 선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사업의 하나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사업 참여주체인 이용자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개념을 도입하였다.

#### 8

툴킷(Toolkit) 활용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제시하는데 편의성을 높였다.

#### 9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Needs) 파악을 위해 메모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 서울디자인재단



## 연희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2015)

-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9
- 설계 및 계획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팀  
(주)사이픽스, 마음 스튜디오



© 서울디자인재단

있는 사업이다. 그 동안 동주민센터가 시민들의 행정 및 민원처리 업무만 해결하는 공간이었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사용자인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주민·공무원·건축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동주민센터의 새로운 공간모델로 지역 재생, 문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희동 주민센터에 대한 공간개선 사업은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센터 직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였다. 단순히 공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센터만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에 맞는 총

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필요로 하였다. 즉,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행정 공간이었던 주민센터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공간·프로그램·서비스가 모두 통합되어 있는 핵심 모델을 발굴하고자 시도된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 선도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본상(2017)을 수상하였다.

### 10

연희동 주민센터 1층은 기존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한 분위기의 복지 및 민원 행정 처리 공간으로 개선되었다.

### 11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센터 2층은 휴식공간인 '킵 카페'로 탈바꿈하여 테라스 및 놀이 공간으로 활용된다.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요건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이러한 수단은 몇가지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변경이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확인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실한 검토와 확인없는 요건의 변경은 모처럼 마련한 원칙들을 사문화,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 **4** 좋은 공공건축이 가져야 할 요건

# ①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다면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기획과정이 요구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부족한 공간으로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현 단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공공건축은 시설물로서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설물로서의 공공건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고려대상으로서의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시민사회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공공건축은 재구성되고, 재고되는데서 공공성의 확보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획이 먼저 마련되고, 그러한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건축에 대한 논의가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공공건축 프로젝트인 ‘동네에서 5분 만에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으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빌리고, 반납한다는 개념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젝트이다.

청량리역 광장, 배봉산 근린공원 산책로, 장안동 벚꽃 독방길에 설치되었으며, 청량리역 광장은 공항버스터미널과 연계하고 배봉산 근린공원 산책로는 주변에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이 많아 산책로 상의 공터를 이용해 작은 무대

## 동대문 컨테이너 도서관 (2014)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대
- 규모 지상 1층
- 면적 건축면적(연면적)  
28.48[2개소],  
14.24[1개소]㎡
- 설계 및 계획  
유타건축사사무소

를 겸할 수 있게 설계했다. 장안동 벚꽃 독방길에 자리한 도서관은 많은 시민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지나는 길로 평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야외 휴식과 조망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 김희수

동네에서 5분 만에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은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로 계획되었지만, 주민들에게 문화활동과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례이다.

1 장안동 장안벚꽃길 도서관

2 청량리역 가운누리 도서관

## 영등포 컨테이너 주택(2012)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8 일대
- 규모 지상 3층
- 면적 건축면적 287.45㎡, 연면적 535.35㎡
- 설계 및 계획 유아이에이(UIA) 건축사무소

본 사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영등포 쪽방촌과 타임스퀘어 복합 상업단지 및 백화점 지역과의 **계층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 재생의 시작으로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당시 대상지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쪽방촌 지역의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동선계획과 구조적 안전성 및 미관에 대한 고민**이 큰 작업이었으며, 컨테이너의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도시적 환경 재생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한 사례 이다.

— 유아이에이(UIA)건축사무소 위진복 소장 인터뷰 중

영등포 컨테이너 주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쪽방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 고가도로 하부에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한 사례이다. 열악한 쪽방촌 지역의 주거환경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 기존의 쪽방촌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과 1.5평 크기의 36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재활용, 이동성 그리고 도시재생의 이유로 13년 이상 되어 운송 수명을 마친 20개의 중고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쪽방촌 지역의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하였으며, 단기적인 임시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용 컨테이너의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도시 환경의 재생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 34

오랜시간이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쪽방촌 거주자들의 임시 거주시설 및 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영등포 컨테이너 주택'이 계획되었다. 1.5평 크기의 거주공간이지만 컨테이너로 구성된 임시 거주시설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한 사례이다.

## ② 어떻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4

기존의 시설물 중심의 공공건축은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훌륭한 도서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거주자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면, 그러한 도서관 건물은 개별적인 건축물로서는 뛰어날 수 있더라도,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전달수단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오히려 움직이는 이동형 도서관이라던가 배달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중심되고,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도서관이 더욱 바람직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도시의 일부지역인

### Bieb Bus (2011)

- 위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대
- 규모 가변형 컨테이너 트럭 1량
- 면적 52㎡
- 설계 및 계획 Jord den Holla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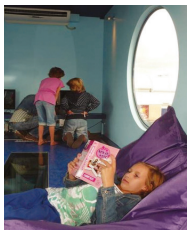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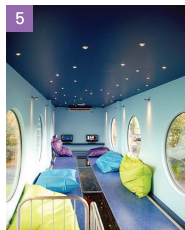
Zaan지역은 지역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할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에서 실용적인 대안으로 Bieb Bus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가 좁은 편으로 기존에 제공되던 50㎡ 규모의 이동식 도서관보다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

5

Bieb Bus의 1층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 마련된 도서관이며, 2층은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의 독서와 어울림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6

1층은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2층 컨테이너 공간은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구조이다.



[자료] <https://www.domusweb.it/en/design/2011/04/11/biebus-the-expanding-mobile-library.html>

## Med-1 Mobile Hospital(2004)

- 규모 가변형 트레일러 3량
- 면적 92㎡ (확장 시 465㎡)
- 설계 및 계획  
Tom Blackwell  
(Med-1 Partnets)

요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확장형 이동식 도서관을 개발하여,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 이용계층인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즐거운 경험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트레일러에 고정된 상대적으로 작은 내부 공간은 약 7,000권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 공간이며, 컨테이너가 위쪽으로 미끄러져 공간이 확장되면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Bieb Bus는 상시적으로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하며, Zaan지역의 초등학교는 도서

관 서비스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방과 후에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Med-1 Mobile Hospital은 대형 재난현장 및 집단 감염병 확산지역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병원으로, 수많은 환자의 이송에 대한 문제와 전염성이 높은 질병 환자의 격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실제로 Med-1 Mobile Hospital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루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운영이 진행 중에 있다.

Med-1 Mobile Hospital은 200개의 병상과 7개의 응급환자병상, 4개의 침대로 구성된 중환자실, 2개의 침대로 구성된 수술실로 주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이동식 병원이다. 자동 전개가 가능하고 수평 조절 시스템이 포함된 360° 알루미늄 천막구조는 200개의 병상까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7

Mississippi Med-1의 사례

8

Mississippi Med-1의 사례



[자료] [http://www.msds.state.ms.us/msdhsite/\\_static/23,7548,341,517.html](http://www.msds.state.ms.us/msdhsite/_static/23,7548,341,517.html)



[자료] <https://www.carolinashalthcare.org/medical-services/specialty-care/other-specialty-care-services/trauma-care/carolinas-me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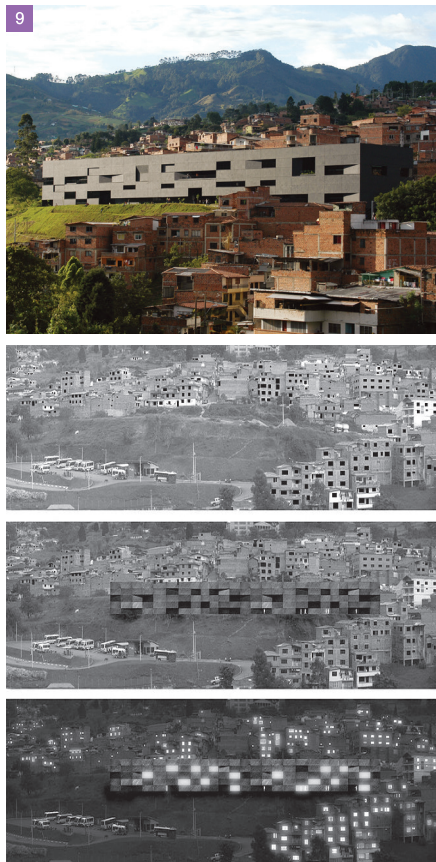
### ③ 어떻게 기존 공공서비스의 체계에 연결할 것인가?

4

9

페르난도 보테로 도서관은 저소득층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건립되어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재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 사례이다.

공공건축이 가지는 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의 힘은 모든 사회계층과 지역에 동일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스로 책을 사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계층에게는 대규모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가 다소 감소할



| 자료 | <https://www.gateliers.com/fernando-botero-library-park->

#### Fernando Botero Library Park (2009)

- 위치 콜롬비아 메데인
- 설계 및 계획 G-Ateliers Architecture

것이며, 지역 안에서 문화적 체험이 부족한 지역은 작은 도서관이라도 지역주민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공건축은 주변의 환경과 무관한 중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건축보다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이며, 그만큼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축이다. 모든 지역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건축의 공공성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페르난도 보테로 도서관은 콜롬비아의 산 크리스토팔(San Cristobal) 역사상 전례가 없는 야심찬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문화 시설 및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투자 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저소득층 인구 밀집 주거지역의 가장 시급한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대상지인 콜롬비아 메데인의 시장이었던 세르히오 파하르도는 '우리 시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은 가장 낙후된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

## Guggenheim Bilbao (1997)

- 위치 스페인 빌바오
- 설계 및 계획 Frank, O. Gehry

장하면서 아름다운 도서관을 슬럼가에 건설하도록 하였다.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전시공간, 극장, 강연, 카페 및 레스토랑, 도서관, 다용도실 및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제공되고 있다.

빌바오는 15세기 이래 제철소, 철광석 광산, 조선소 등이 즐비했던 공업도시로, 1980년대 들어 철강산업이 쇠퇴하고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도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쇠퇴되어 갔다. 1991년 바스크 지방정부는 빌바오가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문화산업 육성이라 판단하고 공항이나 지하철 역사 및 최첨단의 보행용 다리들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아울러 네르비온 강변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재개발계획에 1억 달러를 들여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게 된다.

이 건축물은 빌바오의 경제를 되살려놓은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구겐하임 빌바오가 있던 지역은 조선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적치된 곳이었으나 빌바오 시의 노력으로 공원, 사무실, 아파트, 상가 등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구겐하임 빌바오는 ‘빌바오의 기존 분위기에 역행하는 새로운 건축형태를 갖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프로젝트의 조건에 부합되는 공공건축물이다.



| 자료 | <https://www.guggenheim.org/about-us>

### 10 11

네르비온 강변에서 바라본 구겐하임 빌바오의 전경과 실내 전시관의 모습이다. 구겐하임 빌바오는 기존 도시 분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건축형태를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 4 어떻게 주변의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과 연계할 것인가?

공공건축의 공공성은 필지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주변의 건축물과 공간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모든 가로는 공공의 것인데, 공공건축은 가로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주변의 공원이거나 공공공간, 민간건축물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또는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어디에 입지해야 하는가? 공공건축에 대한 질문은 개별적인 공공서비스나, 입지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간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응답도 포함해야 한다.



**12** 경관협정 전 거북시장 가로변은 무질서한 옥외광고물과 불법주차로 인해 가로공간 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공간이었다.



**13**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민간시설과 가로공간을 활성화 하여 매력적인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 거북시장 느림보 타운 (2012)

-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24
- 규모 76개 상가
- 면적 131,900㎡
- 설계 및 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관연구회

거북시장 느림보 타운 조성을 위한 경관협정은 수원시 거북시장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연구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관연구회)에서 거북시장 상인회와 공동의 노력으로 체결에 이른 사례로, 느림보타운 전체 중 거북시장 길에 대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을 기반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관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외부경관 관리 및 청결유지, 일 년 열두 달 행사 진행, 경관협정사업 부분을 임의로 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 유지, 야간조명 개선 및 운영, 주차 관리, 화단(화분) 설치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북시장 길에 면한 상점들의 건축물 외관 및 간판 정비, 전선지중화, 가로시설물 개선 등 거북시장 특화사업과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2016)

-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25
-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 면적 건축면적 838.03㎡, 연면적 : 2,968.08㎡
- 설계 및 계획 (주)디자인그룹오조건축사사무소

본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한 공모방식을 통해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디자인 감리제도를 통하여 설계자가 시공과정에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한 프로젝트이다.

서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과의 연계, 중앙광장을 통한 노인복지관과의 접근성, 영주선·영동선 방향의 보행로 연결, 굴다리 경관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주변과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통해 삼각지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노인·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 現 플로건축사사무소 최재원 대표 인터뷰 중

민간시설과 가로공간을 활성화한 사례로 손꼽힌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삼각지공원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므로 주변 공공시설과의 조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공원 내 건폐율 제한 법규 때문에 지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공원의 여유공간을 지키면서 프로그램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대지를 입체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여, 법적인 건폐율을 맞추면서 수평적으로 넓게 공간을 계획한 사례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단독건물을 짓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달리 건축물이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적용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 조계원



© 에코라인 레미스

14  
15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은 삼각지 공원의 보행동선과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느 방향에서든 자연스럽게 공간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⑤ 어떻게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는 도시조성을 선도할 것인가?

**16**  
뱅크사이드(Bankside) 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2000년에 개관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기존의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랜드마크로써 탈바꿈 되었다.

**17**  
2000년에 건설된 '밀레니엄 브릿지'를 통해 템즈강 북쪽과 연결되어, 전통건축으로서 랜드마크인 '세인트 폴 대성당'과 현대건축으로서 랜드마크인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마주보고 있다.

좋은 공공건축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선도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선례도 필요하다.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역사적 건축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형마트가 한 도시의 관문을 지키는 상징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료] 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ate\\_Modern\\_et\\_Millennium\\_Bridge.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ate_Modern_et_Millennium_Bridge.jpg) 아래 <https://davisla.files.wordpress.com/2013/11/tate-modern-landscape-st-pauls-millennium-bridge.jpg>

### Tate Modern Gallery(2000)

- 위치 영국 런던
- 설계 및 계획 Herzog & de Meuron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템즈강변의 뱅크사이드(Bankside)발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탄생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던 화력발전소는 공해 문제로 1981년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위치적으로도 원래 이 지역은 런던 내에서 개발이 지체되면서 낙후된 지역이었다. 영국 정부와 테이트 재단은 약 8년 간의 공사를 통해 본 건물의 기존 외관은 최대한 손대지 않고 내부는 미술관의 기능에 적합한 새로운 구조로 리모델링하였다. 직육면체 외형의 웅장한 매스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모두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한 가운데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그대로 솟아 있는데, 반투명 패널을 사용하여 밤이면 등대처럼 빛을 내도록 개조하여 이 굴뚝은 오늘날 테이트 모던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품들은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현대미술, 실험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해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 Fulton Center (2014)

- 위치 미국 뉴욕
- 설계 및 계획  
Nicholas Grimshaw

또한, 테이트 모던 앞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밀레니엄 브릿지를 설치하여 템즈강 강북에 위치한 세인트 폴 대성당(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세계에서 2번째 규모의 성당)과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이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문화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 심장부에 위치한 뉴욕 광역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풀턴센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추모관, 시청, 금융가 사이에 위치하고 로어 맨해튼으로 오가는 관문이라 불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이다. 미국 산업화 시기에 지어진 로어 맨해튼 주변 지역의 주철 건물들에서 영감을 얻어 리모델링되었으며, 1888년 건설되어 철거예정이던 코빈 빌딩(Corbin Building)을 보전 및 개축하여 프로젝트에 포함하였다. 풀턴 센터는 기억에 남는 도시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역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도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Fulton\\_Center#/media/](https://en.wikipedia.org/wiki/Fulton_Center#/media/)

### 18

코빈 빌딩의 보존·개축과 함께 풀턴 센터의 상징인 돔 구조의 원형창이 시공(2012년 2월)되는 모습이다.

### 19

코빈 빌딩의 내·외부 개축을 통해 가능한 19세기 원형을 보존하려 노력하였으며, 풀턴센터의 지하철 역사 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철거 예정이던 로마네스크 복고주의(Romanesque Revival) 양식으로 1888년에 지어진 코빈 빌딩을 보존·개축하여 건설한 뉴욕 맨해튼의 풀턴 센터(Fulton Center)이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기존의 건물을 고려하여 9.11 테러 발생 후 13년 만에 뉴욕에서 가장 큰 지하철 교통환승센터로 준공되었다.

## 6 어떻게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인가?

20  
21

텐진 중앙공원과 도심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본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모습이다.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계단식 정원은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며, 도심 속 정원을 걸어 보는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아크로스 후쿠오카는 1995년에 개관되어 국제, 문화, 정보의 교류거점시설로서의 공공 건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건물 전체를 녹지가 덮고 있는 듯한 이 건축물은 바로 옆에 흐르는 나카스강과 텐진 중앙공원과도 자연친화적으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녹화면적은 5,400㎡로 일본 옥상 녹화 시설 가운데에서도 최대급 규모이며, 열섬현상의 완화와 휴과 녹음의 단열효과를 통한 건물내부의 냉·난방부담 경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 자료 | <http://showcase.city.fukuoka.lg.jp/photo/?mode=search&theme=mc025>

### ACROS Fukuoka (1995)

- 위치 일본 후쿠오카
- 규모 지상 14층, 지하 4층
- 면적 건축면적 10,622㎡, 연면적 97,403㎡
- 설계 및 계획 Emilio Ambasz

친환경 건축물이다. 텐진 중앙공원 쪽에서 바라보는 아크로스 후쿠오카 건물의 전면은 계단식 정원인 스텝 가든(Step Garden)을 남향으로 설치하여 자연경관적 요소는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 당시의 구성 수종은 전체적으로 76종의 37,000그루였으나 추가적인 식재 및 조류에 의한 씨앗의 발아로 인해 수종이 늘어 현재 계단식 정원에는 120종의 나무와 식물이 총 50,000그루 이상 자라고 있다.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해 도시에 고층건물을 짓는 도시목조화는 장기적인 탄소 저장을 가능하게 해 기후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방법으로 국제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그간 대형 목조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중목구조 건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만큼, 국립산림과학원을 대외적으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2016)

-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67
-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 면적 건축면적 1,395.88㎡, 연면적 4,552.55㎡
- 설계 및 계획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본 사업은 공공건축에서 **최대 규모의 목구조 건축물**로 건축발전에 전환점을 갖는 프로젝트이다.

목구조 건축의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목구조 건축분야의 전문설계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법규 및 재료에 대한 인증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주택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 있는 건축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산 낙엽송을 활용한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함으로써 목재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국산목재를 활용한 중목구조(기둥보 방식)** 시도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이도형 대표 인터뷰 中

로 대표하는 조형물로서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건축법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인 4층의 중목구조를 적용하여 종합연구동을 신축하였다. 고중량의 시험장비를 배치하는 실험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무공간은 구조용집성재를 이용한 목구조를 적용한 구조로 친환경성과 구조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과 활성화, 국내산 낙엽송 등 국산 목재의 다각적 활용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의 흔들림은 건축물의 무게에 따른 관성에 의해 건축물에 수평하중을 부여하며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지진에 의한 수평하중의 크기가 커지는데, 목조 건축은 주요 구조부재가 목재로 된 건축물로 다른 재료에 비해 무게 대비 강도가 크고 탄성과 충격흡수능력이 좋다. 또한 비구조요소(벽 가새, 접합부 및 고정 등의 기본 요건들을 만족시

키는 경골목구조)들도 지진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내진설계 시 타구조 건축물보다 장점을 지니고 있다.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 22 23

종합연구동은 도시 내 공공건축물로서 지역사회의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예술적·문화적 건축으로 추진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효율성 및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목구조로써의 내진설계의 가능성을 제고한 공공건축 우수사례이다.

# ⑦ 어떻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킬 것인가?

민간건축에 비해 더 많은 복잡성과 결정요  
소들이 함께 하는 공공건축은 역설적으로 결정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애매해진다. 불확실성이 더 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  
부문의 한 예산사업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기획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우  
리의 공공건축에서는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누  
구에게 얼마만큼 제공하고자 하는가를 명확하



**24**  
도로에서 바라본 북촌 갤러리와 북촌관광  
안내소, 공중 화장실의 모습이다.

**25**  
옹벽을 허물어 마련된 완충공간인 '홍현마  
당'의 야간경관이다.

##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2016)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정독도서관 내
-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 면적 건축면적 144.65㎡,  
연면적 150.08㎡
- 설계 및 계획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게 정의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시설물을 짓는 것  
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수  
록 공공건축은 시설물을 뛰어넘어 살아 움직이  
는 공공서비스의 매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북촌마을에 자리 잡은 정독도서관은 부지 위  
치가 인접 부지보다 높고, 기존의 유일한 보차혼  
용 출입구만으로 진입되는 폐쇄적인 공간구조  
로 인해 마을과의 관계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공간 이용의 효  
율성을 높이하고자 정독도서관과 북촌마을 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마을에서 필요  
로 하는 주민지원시설과 관광 기본 인프라 마련  
을 위한 기존의 35m 콘크리트옹벽을 철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박물관으로 활용되어지는 서울시등록문화

## 관악구 도시보건지소 (2015)

-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 보라매동 주민센터 내
- **위치** 지상 3층
- **면적** 건축면적 706.61㎡, 연면적 1,991.25㎡
- **설계 및 계획** 디림 건축사사무소



© 디림 건축사사무소

재인 교육자료관 진입공간과 정독도서관 전체의 보행진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 경계지점에 북촌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그리고 북촌갤러리를 마련하였다. 부지 안과 밖의 관계 회복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완충 공간으로서의 쉼터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독도서관 공간의 공공성을 극대화한 사례이다.

보라매동 주민센터는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환경 속에 위치한 곳으로, 전면의 주차장 부지는 주민센터 직원 및 이용자와 인접건물 주민들의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항상 혼잡한 상황이었다. 건물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어 보건지소가 들어서면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관악보건지소를 위한 독립부지를 찾지 못한 관악구는 건축법규 이상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 보라매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을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명확한 공간활용을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었다. 보건지소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보행로와 주차로가 분리되었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되었다. 공간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공건축물로서 지역사회의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건축을 추진한 사례이다.

### 26

보라매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된 관악구 보건지소의 모습이다. 세 개의 박공지붕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최소한의 창을 내어 인근 주택들과의 다툼을 피했다.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사실 현상에 대한 논의와 인식의 공유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 널리 지어지고 이용되고 있는 현실 속의 공공건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채로 제시하는 규범적 접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공공건축이 되기 위한 원칙과 요건을 평면적이거나 제시하고자 하는 이 책의 목적은 확정된 규범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어진 현실적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바라며, 또한 그러한 논의의 덧붙임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 5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적 접근

##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적 접근

## 5

공공서비스의 물리적 교두보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간적 복지의 중심으로서의 공공건축은 민간건축과 공공시설 등을 이어주는 가로환경의 중요한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차원의 다양한 맥락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선두주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공건축을 구현하는 일은 결코 어느 사회에서도 쉬운 일을 아닐 것이다.

그만큼 행정의 원숙함, 시민사회의 역량, 전문가집단의 실력이 함께 견비되어야 가능한 것이 공공건축이라고 본다면, 다양한 층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앞서 여러 가지의 공공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나,

시민집단, 전문가 등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결과는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일방적인 결과물이 누적된 것이 우리의 공공건축의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공공건축에 좀더 다양한 공공성이 수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프로젝트로서의 공공건축은 흔히 경제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목표와 비전예의 합의, 확고한 협력적 태도와 과정, 구체적이며 적절한 기술적 대안제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구현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단행본]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7), 2017년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우수 공공건축 답사 교육자료.
- 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2015), 연희동 주민센터 새롭게 열.리.다\_2015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디자인 결과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 3) 서울특별시(2016),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2012~2015), 서울특별시.
- 4) 엄철호 외(2008),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5) 차주영 외(2014),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1\_영주시의 시도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6) 책너울편집부(2015),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 건축, 책너울.
- 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2016 결과자료집.

### [학위논문 및 학술지]

- 1) 고하정 외(2016), 수원 거북시장 경관협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4(6), pp.1~12.
- 2) 임의영(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pp.1~21.

### [인터넷 사이트]

- 1)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
- 2) 월간 SPACE, <http://www.vmspace.com>
- 3) ACROS Fukuoka, <http://acros.or.jp>
- 4) archdaily, <http://archdaily.com>
- 5) debieb, <http://debieb.nl>
- 6) guggenheim bilbao, <http://guggenheim-bilbao.eus>
- 7) med-1 partners, <http://med-1 partners.com>

